
서 평

www.kci.go.kr

병자호란 연구의 새로운 定礎

[서평] 구범진(2019), 『병자호란, 흥타이지의 전쟁』, 까치, 403쪽.

허 태 구*

1. 머리말

2019년 2월 출간된 『병자호란, 흥타이지의 전쟁』은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청 태종 흥타이지의 시각을 빌어 병자호란의 새로운 역사상을 구축하고자 한 구범진 교수의 야심찬 역작(力作)이다. 본서는 기존 병자호란 연구의 대표적 성과라 할 수 있는 한명기 교수의 두 명저(名著)¹⁾가 한국사의 입장에서 전쟁의 정치·외교·군사적 교훈을 찾고자 노력한 것과는 문제의식부터 적지 않은 차별점이 존재한다. 한 교수의 두 저작이 이전 병자호란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아 맞이한 본서의 출간으로 인하여 관련 연구는 좀 더 풍부한 시각과 해석을 갖추게 되었다.

저자는 청말 염세(鹽稅)와 재정(財政) 문제를 다룬 박사학위논문을 집필한 이래 한·중관계사로도 연구 영역을 확장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국사학전공 조교수

1) 한명기(2009),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13), 『역사평설 병자호란』 1·2, 푸른역사.

쉽 없이 학계에 제출하였다. 관련하여 자신의 주 전공인 명·청 시대와 관련된 여러 권의 번역서와 개설서를 집필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외교문서의 국역과 연구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의 주요 저작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2004, 『清末의 北洋新政 研究: 直隸省의 鹽政改革과 財政問題』, 서울대학교대학원 동양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2007, 『쟁점으로 읽는 중국 근대 경제사 1800~1950』(필립 리처드슨 著·강진아 共譯), 푸른역사.
- 2009, 『장제스(蔣介石) 일기를 읽다』(레이 황 著), 푸른역사.
- 2010, 『최후의 황제들: 청 황실의 사회사』(이블린 S. 로스키 著), 까치.
- 2012, 『이문역주(吏文譯註)』 상·중·하, 세창출판사.
- 2012,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 민음사.
- 2013, 『조선시대 외교문서: 명·청과 주고받은 문서의 구조 분석』, 한국고전번역원.
- 2016, 『중국의 감춰진 농업혁명』(황쥬즈 著), 진인진.

본서는 병자호란이라는 전쟁 자체의 전개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목표 아래, 저자가 기 발표한 병자호란 관련 논문 6편²⁾을 해체하여

2) 구범진·이재경(2015), 「丙子胡亂 당시 淸軍의 構成과 規模」, 『한국문화』 7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구범진(2016), 「병자호란과 천연두」, 『민족문화연구』 7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丘凡眞·李在景(2017), 「崇德元年(一六三六)の外藩蒙古會盟と丙子胡亂」, 『史林』 100 (6), 日本 京都: 史學研究会; 구범진(2017), 「병자호란 시기 강화도 함락 당시 조선군의 배치 상황과 청군의 전력」, 『東洋史學研究』 141, 동양사학회; 변도성·김효원·구범진(2017), 「병자호란 시기 강화도 함락 당일 염하수로의 조석과 조류 추산」, 『한국과학사학회지』 39 (3), 한국과학사학회; 구범진(2017), 「병자호란 시기 청군의 강화도 작전 — 목격담과 조석·조류 추산 결과를 중심으로 한 전황의 재구성 —」, 『한국문화』 8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반영하고 추가로 서술한 내용을 합쳐 출판한 것이다. 저자는 「서언」에서 병자호란의 상당수 선행 연구가 지나치게 결과론적 시각에 매몰된 나머지, 당대 위정자들에 대한 단죄적 성격의 서사나 해석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결과 패전을 막지 못한 경위 등이 합리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으며 전쟁 자체의 실상 역시 탄탄한 사료적 근거 위에서 설명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발발 원인, 패인, 대응을 포함한 전쟁의 실제적 진실이 병자호란 이해와 평가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심분 공감할 만한 문제 제기이다. 그리하여, 저자는 책의 상당 분량을 전쟁의 전개 과정 및 사실 관계, 그리고 이와 연관된 통설의 오류를 바로잡는데 할애하였다.

아울러 저자는 자유로이 활용한 만·한문(滿漢文) 사료에 철저하게 근거하여 이러한 논증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본서는 선행 병자호란 연구가 조선과 청의 한문 사료에만 의지하였던 한계에서 벗어나 신선하고 기발한 해석을 제시하게 되었다. 저자는 사료 활용뿐만 아니라 연구 시각의 측면에서도 조선이 아닌 홍타이지의 입장에 서서 병자호란의 서사를 재서술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물론 선행 연구에서도 청측의 의도나 동기가 서술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본서와 같은 수준과 깊이의 설명은 본 적이 없다. 더구나 이와 같이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와 내용을 일반인까지 고려한 간결하고 쉬운 문체와 용어로 서술한 것도 돋보인다. 질문, 분석, 추론에 이르는 역사학적 사고의 과정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한 설명 방식 역시 저자의 역사관과 교육관을 드러내는 부분으로서 본서의 미덕이라 평할 만하다.

병자호란 군사사·외교사 연구에 한 발을 걸치고 있는 평자의 경우, 좀 더 정밀한 병자호란 전사(戰史: A History of Combat)의 서술과 당시 조·청 관계의 실상 복원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사·만주어·청대사에 정통한 연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평소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놀랍게도 이러한 연구 역량을 겸비한 저자가 병자호란 연구에 참여하여

본서를 출간하게 된 것은 진정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로써 역사학계는 한국인 동양사학자가 저술한 병자호란의 단독 저서를 드디어 갖게 되었다.³⁾ 오랜 동안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해석에 몰두한 저자의 노력에 정중하게 경의(敬意)를 표한다. 향후 본서의 연구 성과에 힘입어 한국학계의 병자호란 연구는 또 한 번의 질적 도약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저자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는 평자는 본서의 논증과 해석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뿐만 아니라, 평자는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정치·군사적 대응을 다룬 박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하면서 저자의 연구 성과에 의지하여 많은 오류를 수정한 바 있다.⁴⁾ 평자는 이 지면을 빌어 앞으로 병자호란 연구의 심화와 확대를 위한 계기로서 책의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고, 좀 더 논의해 볼 만한 몇 가지 문제를 차례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하 제기된 문제는 본서의 한계라기보다 관련 연구자들이 향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에 가깝다.

3) 전해중(1970), 『韓中關係史研究』, 일조각; 최소자(1997), 『명청시대 중·한관계사 연구』, 이화여대 출판부; 김종원(1999),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 朝淸交涉과 東亞三國交易을 중심으로 —』, 혜안. 열거한 세 저서는 초기 연구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였지만, 병자호란만 다룬 것은 아니다.

4) 허태구(2009), 『丙子胡亂의 정치·군사사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병자호란과 예(禮), 그리고 중화(中華)』, 소명출판. 대표적으로 병자호란 당시 청군의 동원 병력, 남한산성 농성 당시 ‘제일층지설(第一層之說)’의 의미(出城에서 稱臣으로 수정), 강화도 함락 전후 조·청 양국의 전력과 부대 배치 상황 등을 수정하였다.

2. 본서의 내용과 학술적 기여

본서는 권말에 있는 부록까지 포함하면 총 8장 45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번잡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절의 제목은 생략하였다.

서언

서론

제1장 친정: 총력을 쏟아 조선 정복에 직접 나서다

제2장 기습: 서울을 급습하여 인조의 강화도 파천을 저지하다

제3장 포위: 조선의 근왕병을 격퇴하고 포위망을 완성하다

제4장 조류: 염하수로의 조류가 청군의 강화도 상륙을 돕다

제5장 반전: 협상으로 전환하여 전쟁을 서둘러 끝내려고 하다

제6장 마마: 홍타이지가 조선의 천연두에 쫓기다

제7장 대미: 삼전도 의례로 전쟁의 막을 내리다

부록: 청군의 강화도 작전과 향화호인

각 장의 본제(本題)는 주제어 또는 핵심어이고 콜론 뒤의 부제(副題)는 저자가 각 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다. 마치 미드 에피소드 한 편에 붙여진 타이틀과 같은 각 장의 제목은 학술서이면서도 교양서의 성격을 포기하려 하지 않은 저자의 의도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명기의 전작인 『역사평설 병자호란』의 목차와도 일면 유사한 형식인 것 같아 흥미로웠다. 위에는 생략된 절의 제목 역시 「병자호란의 발발 원인은 무엇인가?」처럼 의문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논점을 명확히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불현듯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와 『역사평설 병자호란』의 절충적 형식을 본서가 지향한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 일반 독자의 가독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저자의

세심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목차에서 드러나듯이 본서의 구성은 ‘발발 — 전개 — 종결’이라는 전쟁사 서술의 기본적 패턴을 따른다. 다만 제4장과 5장은 시간 순서를 바꾸어 편집되었다. 저자도 166쪽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본서의 2~4장이 주로 전황과 관련된 내용으로 조선군의 패인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비해, 5~7장은 대개 강화(講和) 협상의 추이와 그 배경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서언」은 집필 동기와 경위를 정리한 부분이다. 역법과 날짜 표기에 대한 저자의 남다른 관심 덕분에 병자호란의 개전일이 양력 1637년 1월 3일이고, 종전일은 1637년 2월 24일이었다는 중요하지만 낮은 사실도 덤으로 알려준다(p. 9). 「서론」에서는 선행 연구의 경향을 간단히 요약한 뒤 저자의 문제의식을 본격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용 사료, 연구 시각, 문체의 측면에서 본서가 갖는 특징을 정리하였다. 「결론」은 없지만 책 전체의 내용과 집필 의의를 간략히 정리한 내용이 삼전도(三田渡) 의례를 다룬 제7장에 포함되어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 장 및 부록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제1장 「친정」에서는 병자호란의 발발 원인을 재검토한다. 저자는 먼저 ‘정묘호란 이후 지속된 외교 마찰 속에서 조선·후금의 관계는 (1633년) 이미 파탄이 난 상황이었다, 청의 칭제(稱帝) 동참 요구가 도화선이 되어 전쟁이 일어났다’는 통설⁵⁾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묘맹약 이후 누적된 외교적 갈등은 전쟁 발발의 원인이라기보다 전쟁의 역사적 배경에 속할 뿐이라는 반론이다. 그리고 정묘호란 이후 양국 관계를 긴장시켰던 갈등 요인 대부분이 1635년에 이르면 해소되는 단계였다는 스즈키 카이의 최신 연구를 인용하여,⁶⁾ 병자호란 발발의 직접적 원인이 조성된

5) 한명기(2017), 「明清交替 시기 朝中關係의 추이」, 『東洋史學研究』 140, 동양사학회, pp. 66-71.

6)鈴木 開(2017), 「丙子の乱直前の朝清交渉について(1634-1636)」, 『駿台史学』 159, 駿台史学会 등.

시기는 청의 칭제 동참 요구가 나온 병자년 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병자년 삼월 1일에 반포한 이른바 ‘절화교서’(絶和敎書)로 인해 조선이 전쟁을 자초했다는 일반의 상식 역시 비판하였다. 교서 탈취 이후에도 양국 간의 교섭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발발의 직접적 원인이나 계기로 ‘절화교서’를 규정할 수 없으며, 홍타이지는 무력 도발의 명분 중 하나로 이 문서를 활용했을 뿐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저자는 정묘맹약을 폐기하고 칭신을 요구한 주체가 다름 아닌 홍타이지였다는 점에서 전쟁자초론을 다시 한번 비판한다. 아울러 홍타이지의 칭제 명분이 ① 조선 정복, ② 몽고 통일, ③ 대원(大元)의 전국옥새(傳國玉璽) 획득이었는데, 이 가운데 첫 번째 명분인 조선 정복의 경우 정묘맹약의 형제관계를 홍타이지가 아전인수식으로 ‘과대포장’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어 저자는 병자호란 발발의 직접적 계기 또는 원인으로 병자년 사월 11일 심양에서 거행된 황제 즉위식을 지목한다(p. 71). 당시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나덕헌(羅德憲)과 이화(李廓)이 삼궤구고두(三跪九叩頭)의 배례(拜禮)를 목숨 걸고 거부하는 바람에 홍타이지의 즉위 명분이 허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타이지는 이때 손상된 칭제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병자호란을 도발하였다고 주장한다. 저자의 설명에 의하면, 병자호란의 본질은 홍타이지 자신의 정치적 야심이자 어젠다(Agenda)였던 칭제 문제를 해결하고 미완의 황제 즉위식을 완성하기 위한 전쟁이었던 것이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홍타이지는 친정(親征)을 결심하였고, 건주여진 흥기 이래 최대 병력을 동원하는 총력전으로 조선을 침략하였다. 당시 그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명실상부한 조선 정복이었기 때문이다.

이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자는 칭제 이후 홍타이지가 적국 깊숙이 들어가 전쟁을 지휘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며 병자년 유월 명의 내지를 청군이 약탈한 것도 조선 침공의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아울러 선행 연구에서 병자호란 당시 청군의 동원 병력으로 제

시한 12만 8천 명이 전혀 사료적 근거가 없는 숫자였음을 통렬하게 지적하였다. 그리고 당시 팔기(八旗)의 징병 제도 및 관련 기록을 면밀히 고찰하여, 병자호란 때 청이 동원한 병력의 숫자를 4만 5천~5만 명⁷⁾ 선으로 추정하였다. 당시 약 3만 1천~2천 명 정도가 청이 동원 가능한 정규 병력의 총원이었는데, 흥타이지는 이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2만 2천의 병력을 동원하고 동맹인 외변몽고군 1만 2천까지 합하여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덧붙여 50~60만 명에 달했다고 널리 알려진 피로인(被虜人)의 인원 역시 조선 측의 사료에만 근거한 터무니없는 수치임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다(pp. 61-64).

제2장 「기습」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조선의 방어전략과 흥타이지의 공격전략이다. 저자는 이 주제를 고찰함으로써 ‘병자호란 당시 어떻게 청군의 초고속진군이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의 해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저자가 정리한 양측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정묘호란에서 청군의 공성전 능력을 실감한 조선은 ‘대로변에 위치한 평지의 성곽을 버리고 산성으로 입보(入保)한다’는 기본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인조와 조정은 강화도로 파천(播遷)하여 지구전을 벌인다’는 계획을 수립한다. 조선군과 청군의 약점을 감안하여 짝 나름대로 합리적 전략이었다. 반면 흥타이지는 이와 같은 조선의 방어전략을 미리 간파하고, 정묘호란 때와는 전혀 다른 고속 진군과 통과 작전을 구사하였다. 또 기병의 서울 직도(直擣: 直攻)를 염두에 두고 한반도 중부 내륙의 강이 얼어붙는 엄동설한의 시점까지 무력 도발을 자제하였다. 요컨대 조선은 정묘호란의 교훈에 매몰되어 청군의 서울 기습 가능성을 방기한 ‘치명적 과오’를 저질렀다는 것이다(p. 114). 저자는 이상의 내용과 함께 청군 선봉대의 기동 경로와 의도를 세밀하게 복원하였으며, 평안도와 황해도의 조선군이 청군을 막지 못한 경위도 상세히 추론한다. 아울러, 김자점(金自點)과 홍명구(洪命壽)

7) 종군 병사의 가노(家奴)인 쿠틀러 1만 1천을 포함한 숫자.

의 지연된 보고 때문에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가지 못하였다는 『燃藜室記述』의 서사도 근거 없는 비난임을 『인조실록』, 『승정원일기』, 각종 문집 등의 사료를 교차·대조하면서 명쾌히 논증하였다.

제3장 「포위」는 조선군의 방어 거점을 그대로 지나쳐 서울에 도착한 청군 선봉대가 인조의 강화도 파천을 저지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남한산성 입성은 허용한 이후의 전개 과정을 다룬다. 병자년 십이월 16일 청군 선봉대의 세 부대가 남한산성 포위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군의 본대는 ‘양로 병진’과 ‘시차 진군’의 작전을 구사하며 남한산성으로 접근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의 진군은 평안도와 황해도를 지키는 조선군의 기동을 제약하여 근왕(勤王) 작전에 큰 차질을 초래하였다. 도원수 김자점과 부원수 신경원(申景瑗)의 패전이 대표적 사례이다. 충청·강원·경상·전라 남부 4도의 근왕군은 비교적 신속히 남한산성에 도착하였지만, 청군의 선제 기습을 받아 차례로 패전하고 말았다. 이상 3장의 내용은 선행 연구에서도 적지 않게 다루어진 것이지만, 저자는 기존의 오류를 바로잡는 한편 상세한 논증과 정밀한 추론을 덧붙여 연구의 수준을 진일보시켰다.

제4장 「조류」에서는 강화도 실함(失陷)의 원인을 재고찰한다. 평자는 강도검찰사(江都檢察使) 김경징(金慶徵)의 인재론(人災論)으로 요약되는 통설을 비판한 바 있는데,⁸⁾ 저자는 공감함을 표시하면서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설명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저자는 조·청 양국의 전력과 부대 배치, 전투 당일의 교전 상황, 조선군의 패인 등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시하였다. 특히 염하수로(鹽河水路)의 조류 변화가 양국 교전에 얼마나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해양과학자와의 협업을 통해 입증한 내용은 더욱 독창적인 성과이다. 당시 청군이 동원한 홍이포의 숫자가 3문(門)에 불과하였으며, 공유덕(孔有

8) 허태구(2011), 「丙子胡亂 江華島 함락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 — 金慶徵 패전책임론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 『震檀學報』 113, 진단학회.

德)이 지휘하는 청 수군이 강화도 전투에 참전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만
· 한문 자료의 교차 검증을 통해 저자가 처음으로 밝혀낸 사실이다.

제5장 「반전」에서는 병자호란 당시 강화 협상에 임하는 홍타이지의 태도에 큰 변곡점이 있었다는 주장을 새로이 제기한다. 저자는 먼저 홍타이지가 정축년 정월 16일 심양에 있던 정친왕(鄭親王) 지르갈랑에게 보낸 만주어 서신을 분석하여 청군이 구상한 병자호란의 작전 플랜을 추론한다. 이 설명에 따르면, 청군은 정축년 정월 10일 남한산성의 포위 작전 태세를 완성한 이후 최소 이월 말까지는 서울에 머물며, 한강 유역의 결빙이 풀리는 이월 하순경 강화도를 공격하여 피난 간 왕족을 인질로 사로잡을 생각이었다. 적지 않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남한산성의 전면 공격은 최후의 선택지로 남겨둔 채 고사(枯死) 작전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정월 17일에 거대한 반전이 일어나, 청군은 갑자기 협상으로 국면을 전환하여 전쟁의 조기 종결을 서두르기 시작한다. 정월 22일 감행된 강화도 공략 역시 인조의 출성을 압박하기 위해 계획보다 한 달 가까이 앞당겨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반전이 없었다면 병자호란의 결말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을 것이라고 한다(pp. 222-223). 저자의 대담한 가설에 의하면 반전의 원인은 정월 16일 청군 진영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두, 즉 마마였다.

제6장 「마마」는 5장의 결론을 다각도로 논증하는 내용이다. 저자는 우선 마마가 청나라 역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몇몇 장면⁹⁾을 소개한다. 이어서 면역이 없는 생신(生身)이었던 홍타이지가 얼마나 마마를 두려워했는지, 이 공포가 그의 행동을 어떻게 제약하였는지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나아가 마마가 대명(對明) 전쟁의 수행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설명한다. 만주인들이 명나라 내지인 화북(華北)을 침략할 때 마마가 치성(熾盛)할 가능성이 높은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의

9) 차하르의 대간 립단, 준가르 유목민의 지도자 아무르사나, 순치제, 동치제의 사망.

시기를 피하거나, 되도록 면역이 있는 숙신(熟身)인 버일러·장수가 약탈전을 지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축년 정월 16일의 천연두 발생 사실이 당시 청나라 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의로운 전쟁’을 표방한 병자호란의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한다. 당시 마마를 극도로 두려워했던 만주인들은 마마가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였다.

저자는 정묘호란 당시 만·한문 사료를 비교한 뒤 『청태종실록』에 마마 발생 사실이 생략된 점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추론을 방증하였다. 아울러 정축년 정월 16일 이후 홍타이지의 여러 행적과 조치 또한 피두(避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정적 증거로는 미처 삭제되지 못한 『청태종실록』의 두 가지 기록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어영(御營) 근처에서 마마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정축년 유월 27일의 기사이고,¹⁰⁾ 다른 하나는 종전 직후 자신의 조기 귀국이 “마마를 피해 먼저 귀국[避痘先歸]”한 것이라는 홍타이지의 발언이 실린 정축년 칠월 5일의 기사이다.¹¹⁾

제7장 「대미」에서 저자는 자신이 재구성한 병자호란의 실상과 전개 과정을 간략히 요약한 다음, 본서의 집필 의도가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을 무작정 변호하려는 것도 승리자인 홍타이지의 전공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려는 것도 아님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는 병자호란을 종결하는 삼전도 의례의 함의를 홍타이지의 입장에서 부연하는 것으로 본서를 마무리한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홍타이지는 ‘미완’에 그쳤던 병자년 사월의 ‘황제 즉위식’을 정축년 정월 삼전도에서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완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나덕헌과 이확에 의하여 부정되었던 양국의 군신관계가 홍타이지와 인조의 대면을 통하여 마침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다.

부록 「강화도 작전과 향화호인」은 본문과 달리 학술논문 형태의 장·

10) 『淸太宗實錄』 36, 崇德 2년 6월 甲子(27일).

11) 『淸太宗實錄』 37, 崇德 2년 7월 辛未(5일).

절 목차를 그대로 유지한 점이 특징이다.¹²⁾ 제4장 「조류」의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청군의 강화도 상륙 작전 감행을 가능하게 한 정보원이자 조력자가 조선에 귀부한 향화호인(向化胡人)이었다는 가설의 논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강화도 실함의 결정적 계기가 된 흑룡강 모델의 작은 배 건조에 관여하고 염하수로의 상륙 아이디어를 낸 정보원이 동해여진(東海女眞) 출신의 여천과 마푸타였다’는 대단히 흥미로운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서는 기존의 병자호란 서사가 그리지 못한 새로운 사실과 해석을 많이 담고 있다. 저자는 우선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청군 병력 12만 8천 명설, 피로인 60만설, 김자점 지연보고설 등의 과장을 정밀한 논증으로 바로 잡았다. 또한 전쟁의 전개 과정, 조·청 양국 군대의 기동과 작전 구상, 강화도 전투의 실상 등에 대하여 선행 연구가 남긴 오류를 수정하는 한편 기존과 다른 차원의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본서의 성과는 일단 전쟁과 관련된 사실 관계의 잘못을 상당수 수정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향후 병자호란 연구에 입문하려는 독자는 본서를 통하여 전쟁과 관련된 기본적 사실 관계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한명기 교수의 두 저서와 마찬가지로 본서 또한 조선후기 군사사와 외교사를 전공하는 연구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천연두 발병설과 같은 참신한 학설 역시 앞으로 다 방면의 검증과 함께 관련 학계가 그 의미와 영향을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 제기이다.

사료 비판과 활용의 측면에서 본서가 거둔 성과도 주목받아야 마땅하다. 마치 극사실주의풍의 세밀화를 보는 듯한 정밀한 논증은 사료 비판과 해석에 충실하고자 한 저자의 엄격한 학문적 자세를 반영한 것이다. 병자호란 관련 사료의 복잡미묘함을 잘 알고 있는 평자로서는 하나하나

12) 예를 들어, 부록 1절의 목차명은 「청군의 강화도 작전 입안과 정보원의 존재」이다.

의 논증과 추론에 저자가 얼마나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평자를 포함한 후학들은, 편향된 일부 사료에 근거하지 않고 (조·청 양국의) 모순된 사료를 교차·대조하면서 합리적 추론을 통하여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본서의 논증을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단지 청의 만·한문 사료를 자유롭게 활용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위에서 소개한 바대로 새로운 시각과 해석의 도출에 성공한 점 역시 높게 평가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본서는 저자가 「서언」에서 밝힌 ‘홍타이지의 입장에서 본 병자호란의 새로운 서사’란 집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생각한다.

3. 남겨진 문제들

이상 본서의 주요 내용과 학문적 성과를 간략히 정리해보았으나, 평가의 역량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락시킨 부분도 적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 아래에서는 본서에 대한 평가의 소감과 질문을 서술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병자호란의 발발 원인과 관련된 서술이다. 저자는 통설에서 그린 정묘맹약 이후 (점진적 또는 누증적) 관계파탄론을 부정하면서, 병자년 이월 이후의 두 가지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는 청의 칭제 동참 요구에 대한 조선 조정의 거부이고, 다른 하나는 황제 즉위식 당일 조선 사신 나덕헌과 이확의 배례 거부이다. 평가의 오독이 아니라면, 저자는 후자에 큰 비중을 두어 병자호란의 발발 원인을 설명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전쟁 발발의 직접적 계기로 병자년 이월 이후의 두 사건을 주목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자를 포함한 다른 연구자들도 다름바 없다. 평가가 보기에 저자의 독창성은 두 사건 중에서 특히 후자를 강조하고, 이 전제를 바탕으로 홍타이지의 친정과 총력전 나아가 삼전도 의례의 거행 등을 하나의 맥락 속에 엮어 수미일관하게 설명한 지점에

있다. ‘병자호란, 흥타이지의 전쟁’이란 본서의 제목 역시 저자의 이러한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평자 역시 조선 사신의 배례 거부를 정묘맹약 이후 ‘예(禮)의 충돌’이라는 맥락에서 중시하고 흥타이지 친정의 계기로 설명한 바 있지만,¹³⁾ 저자와는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배례 거부를 병자호란이란 무력 충돌의 직접적 계기나 근본적 원인, 양보하여 저자와 같은 큰 비중을 두어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 가지 가정을 해보자! 만약 나덕현과 이확이 그날 배례를 하였다면, 전쟁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을까? 황제 즉위식 당일 흥타이지의 권위와 체면이 이처럼 손상되지 않았다면, 양국의 관계는 이전 같이 지속될 수 있었을까? 친정 또는 총력전 형태의 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을까?

칭제 이후 청은 당연히 조선과의 통교를 이전과 다른 형태로 유지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황제를 자칭한 국서를 보내거나, 후금 사신에게 명 사신과 같은 등급의 대우를 해 달라고 하거나, 명을 정별하는데 신하인 조선국왕의 군대를 동원하려고 명령하였을 것이다. 군신관계를 상징하는 이 모든 사안 하나 하나가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다. 척화론(斥和論)을 견지한 당대인의 입을 빌자면 나라가 망하더라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요구였다. 당시 국가 간의 군신관계를 상징하고 실천하는 조건과 의례는 매우 다양하였다.¹⁴⁾ 황제 즉위식 날, 조선 사신의 배례 거부는 그 가운데 하나였지만, 당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었다. ‘봉표칭신’(奉表稱臣)이라는 연칭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근대 군신관계를 확정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 절차는 ‘칭신의 국서(國書)’였다. 요컨대, 조선 사신의 배례 거부가 물결 위의 거품이었다면 조선 조정의 칭제 동참 거부는 그 물결을 움직이는 깊은 바다의 해류에 해당한다. 병자년 사월부

13) 허태구(2019), 앞의 책, p. 146.

14) 칭신 관계를 전제로 한 사신의 왕래, 연호의 사용, 고명(壽命)과 책인(冊印) 하사 등.

터 십이월, 즉 저자의 해석에 의하면 홍타이지가 이미 친정을 결심한 채 기습의 적기(適期)만을 기다려 의미 없는 교섭을 한 기간 동안, 조선이 만약 황제를 자칭한 청의 국서를 접수했거나 칭신에 준하는 청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더라면¹⁵⁾ 병자호란이란 전쟁은 우리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대인은 왜 청의 칭신 요구를 수락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저자의 해답은 소략할 뿐만 아니라 반론의 여지가 있다. 잠시 뒤 전쟁 자초론을 반박한 저자의 논지를 비평한 부분에서 논의를 보충하여 이어가 보겠다.

친정 및 총력전의 동기에 대해서도 저자가 뚜렷하게 강조하지 않은 몇 가지 맥락을 보완해 설명해 볼 수 있다. 저자가 언급한 대로 애초 홍타이지의 칭제 명분은 차하르 정복과 대원(大元)의 전국옥새(傳國玉璽) 획득이었다(p. 67). 이 두 가지 명분, 특히 후자는 ‘쿠빌라이 이래 몽골 제국 대칸의 적통(嫡統)을 홍타이지가 계승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원(元) 제국의 통치는 중국 내지, 만주, 몽골, 내륙아시아, 고려까지 포함하는 광활한 영역에 미쳤다. 자연스레 홍타이지는 전국옥새의 획득을 계기로 이 영역의 정당한 지배자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를 저자의 설명처럼 ‘조선과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p. 67)로 오롯이 볼 수 있을까? 만주를 통일하고 내몽골은 복속시켰지만 아직 명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황제가 되려는 홍타이지의 입장에서 볼 때, 고려의 영역을 계승한 조선의 칭신 또는 정복은 오히려 필수불가결의 요건이 아니었을까?

저자의 지적대로 당시 조선은 명의 최대 조공국이었다(p. 68). 한편, 명을 제외하면 후금이 국교를 맺고 있던 가장 큰 단일 정치체였다. 강성

15) 청은 이 기간 동안 호부승정(戶部承政) 잉골다이(龍骨大)의 입을 빌어 향후 청군의 대명 공격에 동참할 것, 척화신과 왕자를 인질로 보낼 것, 1년에 한 번 예물을 보낼 것 등을 요구하였다. 만약 이 조건을 수락하지 않으면 홍타이지가 직접 출병할 것이라 협박하였다(趙慶男, 『續雜錄』 권4, 병자년 11월 23일).

했던 고구려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오랜 동안 만주 일대의 유목 민족이나 중국인들에게 전승되어 1115년 금나라를 건국한 여진족과 심지어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도 미리 떠올려보자.¹⁶⁾ 만약 황제 즉위식 당일 조선이 아닌 내몽골이나 동해여진의 한 버일러(貝勒)가 배례를 올리지 않았더라도 병자호란과 같은 형태의 전쟁이 벌어졌을까? 당연히 배례를 거부한 버일러가 속한 부족은 청군에게 정벌당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흥타이지가 굳이 전력을 기울인 형태의 친정을 고집하였을까? 다시 말해, 당시의 상황은 중인환시리(衆人環視裡)의 배례 거부가 문제라기보다 조선 사신의 배례 거부가 문제였다. 요약하자면, 그의 친정은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조선의 위상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친정을 선택한 또 하나의 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조선의 군사력이다. 명이 배후에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수도를 비우고 적의 내지 깊숙이 군주가 대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원정하는 것은 청의 입장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묘호란 당시 조선군의 군사력, 특히 기병 전력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파악한 흥타이지는 배후 차단이나 역공의 부담을 덜고 매우 편한 마음으로 친정을 결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상 두 가지 조건-조선의 위상과 허약한 군사력-이 맞아떨어짐으로써 흥타이지는 칭제 이후 자신의 최대 정치적 이벤트를 친정으로 거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두 번째, 전쟁자초론 비판과 관련된 서술이다.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전쟁자초론이 지닌 역사 인식의 문제점과 사실의 오류를 부각하려는 저자의 주장은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¹⁷⁾ 그러나 본서의 설명만으로 전쟁

16) 이성시 著·박경희 譯(2001), 『만들어진 고대 — 근대 국민 국가의 동아시아 이야기』, 삼인, p. 98; 허태용(2009),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pp. 52-55.

17) 유사한 관점의 선행 연구로는 오수창(2005), 「청과의 외교 실상과 병자호란」, 『한국사시민강좌』 36, 일조각 참조.

자초론이 완전히 극복될 것 같지는 않다. 전쟁자초론의 격렬한 서사가 대중에게 공감되고 지지받는 지점은 전쟁의 도덕적 정당성 여부보다 인조 정권의 정치적, 정책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다.¹⁸⁾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인조 정권이 한 통의 칭신국서만 보내어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를 인정하였다더라면 병자호란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국가적 치욕과 함께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전쟁을 왜 당대의 위정자들은 회피하지 못하였는가라는 분노에 찬 질문을 대중은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대인의 선택이 어떤 시대적 상황과 맥락에서 결정되고 지지받았는지에 대한 저자의 설명은 너무나 소략하다(pp. 66-67). 물론 ‘홍타이지의 전쟁’에 집중하고자 한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축소해도 되는 부분이겠지만, 병자호란 전후의 실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 하나 — 당대 조선인이 고수하고자 했던 대명예리(對明義理)의 본질은 무엇인가? — 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결례를 무릅쓰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설과 다른 평자의 견해를 잠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⁹⁾ 우리의 선입견과 달리, 당시 조선의 조야(朝野)에서는 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과 함께 전력의 열세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 아울러, 명이 임진왜란 때와 달리 구원병을 보내줄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호란기 척화론의 제기는 명이라는 특정 국가에 대한 맹목적 종속이나 국제 정세의 오판에서 기인했다기보다는, 명(明)이라는 한자가 상징하는 중화문명(中華文明)에 대한 가치를 당대 조선의 군신(君臣)과 사대부가 공유하였기 때문이다. 척화의 논의에서 명나라의 지원 또는 문책을 예상하거나 ‘재조지은(再造之恩)’을 상기하는 것은 부차적 요인이었다.

18) 이삼성(2017),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 전통시대 동아시아 2천년과 한반도』 1, 한길사, p. 545-548 참조.

19) 허태구(2019), 앞의 책을 요약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주화·척화의 문제는 외교적 진로의 선택이 아닌 그들이 남긴 기록 그대로 문명과 야만, 인간과 짐승을 택하는 실존적 결단의 문제였다. 아울러 당대인들에게 대명여리의 가치와 대명사대(對明事大)의 의례는 상황에 따라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결코 인식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만 척화론자가 남긴 ‘대명여리의 고수를 위해서 국가가 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류의 발언이나 국가 존망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외교문서의 한 글자, 한 구절에 집착하는 그들의 행동도 이해의 실마리를 얻게 된다. 척화론자들에게 ‘국’(國)이란 그것이 중화문명의 보편적 가치를 담지하고 실천하고 있었을 때에만 유의미한 것이었다.

이처럼 인조 대 대외 정책의 배경에는 척화와 대명여리에 밀바탕을 둔 국내 여론의 엄청난 압력이 존재하였다. 당시 척화론은 외교적·군사적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이해(利害)를 초월한 의리(義理)²⁰⁾의 차원에서 조선 내에서 광범위하게 주장되고 자발적으로 지지받고 있었다. 이것을 부정할 경우 야기될 체제 위기의 폭발력은, 소위 ‘중립 외교’가 초래한 광해군의 정치적 고립과 이것을 틈타 거병에 성공한 인조반정이 반증한다. 당대 조선의 상황과 분위기가 위와 같았기 때문에 나덕헌과 이확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홍타이지에게 배례를 행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며, 인조 정권 역시 청의 칭신 제의를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자년 이월 이후 청과의 군신관계를 회피하면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조선의 선택지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²¹⁾ ‘전쟁을 치른 뒤 패자로서 군신관계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쟁 없이 외교적 결단에 의해 군신관계를 수용’할 것인가라는 두 개의 카드 중 인조가 집어든 것

20) 의리는 당대의 용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만 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나 당위를 의미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한 인간이 의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어떤 은혜나 이득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에 대한 의리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은 나를 잘 길러 주신 부모의 은혜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천리(天理)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 또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21) 이삼성(2017), 앞의 책, p. 549.

은 전자였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분노만 치솟는 결정이지만, 앞서 설명한 당대 조선의 인식론적 환경을 염두에 둔다면 충분히 개연성 있는 선택으로 보인다. 이로써 인조를 포함한 당대 조선인들은 ‘절망적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대명의리의 고수를 위해 끝까지 저항하려 했다’는 행적을 청사(靑史)에 남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묘맹약 직후 인조가 김장생(金長生)과 나눈 대화는 이러한 맥락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김장생: 오늘날의 강화(講和)가 비록 부득이한 상황에서 성립된 것이지만, **척화(斥和)의 주장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斥和之議, 亦不可無]**. 말이 비록 과격하더라도 심하게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인 조: 척화의 주장을 어찌 감히 그르다고 하겠는가? (그렇지만) 대신(臺臣)이 나를 가리켜 오랑캐에게 항복한 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아니한가?²²⁾(강조는 인용자)

이상과 같은 맥락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자가 ① 칭제 동참 요구에 대한 조선 조정의 거부(병자년 이월)와 ② 조선 사신의 배례 거부(병자년 사월)라는 두 가지 사건 가운데 후자를 전쟁 발발의 직접적 계기이자 원인으로 더욱 강조하였던 것은 아닐까? 연관하여 청의 칭제 동참 요구에 대한 척화론 내지 조선의 외교적 선택을 명·청 대결의 예측 불가능성이란 시각에서 보완하려고 한 저자의 설명 역시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1644년 청의 입관(入關)과 명의 멸망이 당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 사건이라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명과 청의 엄청난 국력 차이를 고려해 볼 때, 당대 조선인들이 명·청 교체를 선뜻 예상할 수 없었다는 지적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p. 66). 저자는 당시 명과

22)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3월 庚辰(13일).

의 관계 단절이 이념적 차원이든 현실적 차원이든 선택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대명의리의 이념과 국제정세의 현실을 절충하여 척화론의 동력으로 이해하는 설명이 당대의 역사상과 부합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일단 당대의 척화론자들은 변동 가능성이 있는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청을 배척하거나 청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 척화론의 거두 김상헌이 1639년 명의 징벌을 염려하며 청에 군사를 보내는 것을 만류하는 발언을 남겼지만,²³⁾ 이때의 상황 또는 맥락은 대개 그의 의리론적(義理論的) 논의가 다수의 현실론적 반대에 밀려 난관에 봉착하였을 때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청의 무력 도발이 지금 나의 목젖을 겨누는 칼날이라면, 명의 사후 문책(問責)은 두렵기는 하지만 먼 훗날에 닥칠 위협이었다. 평자는 청의 침략을 눈앞에 두고 정강(靖康)의 변(變)을 염려했다는 당대인이(p. 12) 이와 같은 이치를 무시하고 현실의 명나라도 고려하여 척화론을 고수하려 했다는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자와 같은 절충적 시각을 견지한다면 1644년 청의 입관, 1662년 남명(南明) 정권의 몰락, 1681년 삼번(三藩)의 난 진압, 1683년 정성공(鄭成功) 후계 세력의 소멸 이후에도 여전히 조선 후기 내내 강고한 생명력을 유지한 대명의리의 심성(心性)과 이념을 일관된 맥락과 논리로 설명하기 점점 더 어려워진다.

통설에서는 흔히 대보단(大報壇) 제사의 동력을 영조의 발언에 근거하여 왕권 강화의 차원에서 이해하지만,²⁴⁾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순환론적 설명이다. 이 해석이 유효하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의문이 해

23) 『仁祖實錄』 권39, 인조 17년 12월 戊申(26일) “前判書金尙憲上疏曰 … 今之謀者以爲 禮義不足守 臣未暇據禮義以辨 雖以利害論之 徒畏強隣一朝之暴 不懼天子六師之移 非遠計也”.

24) 『英祖實錄』 권40, 영조 11년 3월 辛未(1일) “上引見大臣備堂 左議政徐命均以日寒請寢皇壇親祭 上曰 予欲行臣禮於皇壇 使諸臣知君臣之義耳”[계승면(2011), 『정지된 시간 — 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 —』, 서강대학교출판부, p. 133 참조].

소되어야만 한다. 왜, 조선후기의 왕권은 명이 멸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명의리와 연관된 제례의 시행을 통하여 강화될 수 있었는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러한 방식의 왕권 강화 시도가 한국 역사에서 유효하게 되었는가? 평자는 조선시대 국왕과 사대부가 공유하였던 ‘중화(中華)’를 보편문명으로 인식한 내면²⁵을 전제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보단 제례의 왕권 강화 효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서울 ‘직도’ 허용과 관련된 부분의 서술이다. 과연 조선은 청군의 ‘직도’ 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묘호란의 경험과 교훈에 매몰되어 대책을 방기하는 ‘치명적 과오’를 저지른 것일까? 일단 저자의 주장은 “古人所謂無所不備 則無所不弱者 不其然乎”와 같은 어구²⁵를 읊조리는 당대 무장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본 해석이다. 아울러 다음 사료에 보이듯이 정묘호란 이후에도 조선 조정은 청군의 ‘직도’ 가능성을 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방어에의 거점을 어디에 둘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를 놓고 많은 논란이 벌어졌던 것이다.

삼가 신(臣: 김육)이 접반사신(接伴使臣) 이홍주(李弘胄)를 수행하여 서쪽으로 내려가 오가는 즈음에 적들이 휩쓸고 지나간 양서(兩西) 지방을 지나면서 보니 참혹함을 말로 다할 수가 없었으며, 완전한 고을이라고 하는 곳도 또한 지탱하기 어려웠습니다. …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한 도(道) 가운데에서 몹시 험하여 지켜낼 만한 성을 택해 가까운 곳에 있는 고을의 사·민(士民)들로 하여금 온 집안을 이끌고 그곳으로 들어가 보전하게 하는 것만한 방도가 없습니다. … 어떤 사람은 “명도(名都)와 거진(巨鎭)을 모두 버려두고 산골에 있

25) 張晚, 『洛西集』 권2, 疏筭「論北關民瘼兼陳機務筭 曆朝時」. ‘모든 곳을 다 방어하려 한다면, 모든 곳이 다 허술해진다’는 뜻으로 승리를 위해서는 한정된 전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孫子兵法』 제6장 「虛實篇」에 “無所不備 則無所不寡”라는 구절이 보인다.

는 작은 산성만 지켜서 적들로 하여금 직로(直路)로 곧장 진격하게 하다니, 이것이 어찌 적을 막는 방책이겠는가?”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참으로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세(事勢)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명도와 거진을 어찌 버리고 싶겠습니까? 지켜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명도나 거진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성을 쌓는 공력을 허비하고 방어하는 병기를 낭비하였다가 한번 패했다 하면 장수와 군사가 모두 죽고 백성들이 모두 도륙당하고 맙니다. 이것은 얼마 전(= 정묘호란)에 이미 경험해 본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다시 전철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백성들을 보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자 지키게 하고, 수시로 정예병을 내어 길가에 매복하였다가 요격해서 적을 앞뒤에서 뒤흔드느니만 못합니다. 그럴 경우 적병이 와서 얻는 것은 단지 이름만 큰 빈 성뿐이고, 들판에서는 아무것도 노략할 것이 없으며, 우리나라 군사들이 뒤를 칠까 염려되어 결단코 감히 곧장 몰아쳐 내려와 깊숙이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²⁶⁾(강조는 인용자)

이상의 정황을 고려한다면, 당시 조선의 ‘치명적 과오’가 어떤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되었던 것인지 좀 더 천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접근이 부족하다보니 본서의 서울 ‘직도’ 허용에 관한 서술 또한 통설의 인재론(人災論)에 포섭되어 버리고 만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사회경제사 분야의 학문적 역량이 뛰어난 저자이기에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네 번째, 저자가 제기한 천연두 발병설에 관한 내용이다. 이 가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필자의 지식이 일천(日淺)하여 본격적 논평은 불가능하다. 이것에 대한 신뢰할 만한 검증은 청대사 전공자 및 의학사 연구자의 몫으로 남겨 두고자 한다. 단지 평자의 간단한 소감만 피력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정축년 정월 청군 진영 근처에서 천

26) 金堉, 『潛谷遺稿』 권4, 疏筭 「論兩西事宜疏」 丁卯 六月.

연두가 발생했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이 병자호란의 전개에 얼마나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저자는 홍타이지와 생신 버일러들의 피두 행태, 그리고 화북 약탈전을 수행하다 감염되어 사망한 버일러 요토(Yoto)의 경우를 들어 마마가 청군의 군사 작전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행적이 정월 16일 이후 청군이 시간에 쫓기기 시작했다는 저자의 주장과 직접적 인과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6장 초반에 거론된 논거에 마마의 집단 발병으로 인하여 청군이 작전 수행에 큰 차질을 빚었다거나 부대 전체가 회군해야만 했다는 등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마의 위협이 청군 최고 지휘부에게만 민감하게 인지된 것으로 부대 전체의 작전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상정해본다. 조선을 초토화시키거나 인조 정권을 교체하여 홍타이지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반문해 본다면, 마마 때문에 병자호란의 종전이 조선 측에 유리하게 귀결된 것이라는 저자의 추정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

4. 맺음말

마지막으로 위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저자의 노고를 강조하면서 논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머리말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저자는 이미 여러 연구서, 번역서, 개설서를 저술하여 학계에 많은 기여를 한 중진 연구자이다. 저자가 자신의 주 전공인 명·청시대사 연구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낯선 병자호란 연구에 뛰어들어 단 기간 안에 이토록 높은 수준의 저서를 내 놓았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는다. 창작을 뛰어넘는 번역의 고통을 절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청대사 교육을 위해 학

술서의 번역에 다시 뛰어 들었다는 저자의 고백²⁷⁾을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다. 아마 본서의 출간을 위해서도 저자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오랜 시간 매진하였을 것이다.

특히 저자는 자신의 독창적 연구 성과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평이한 문체와 생동감 넘치는 비유 — 청군의 서울 ‘지도’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군의 마지노선 돌파 비교 — 로 재서술하는 수고를 마다 하지 않았다. 학문적 수준과 더불어 재미와 감동을 갖춘 역사서의 집필은 역사학자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이 로망을 연구 실적의 압박에 시달리며 실현하기란 정말 어렵다. 본서가 과연 이 수준에 도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평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독자가 있겠지만, 출간을 위해 저자가 흘린 땀방울만큼은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들여 수록한 사진, 지도, 표 역시 저자의 귀중한 학문적 성과가 응축된 결과물이다. 예를 들어, 「홍타이지의 국서와 ‘제고지보」(p. 54)와 같은 사진의 경우는 평자조차 처음 접한 자료이다.

이상 구범진 교수의 역저(力著)를 소개하고 함께 논의해 볼 만한 몇 가지 문제를 정리해보았다. 저자가 「서언」에서 요청한 질정(質正)이라기보다 사소한 질문(質問)만 던진 것 같아 부끄럽지만, 독자의 이해를 조금 이나마 돕는 차원에서 미력(微力)을 다하여 작성하였다. 혹시 평자가 저자의 논지나 의도를 오해하여 빚어진 잘못은 없는지 심히 두렵다. 현명한 독자들이 평자의 오류마저 잘 걸러 본서의 진가를 알아줄 것이라 믿는다. 몇 달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통해, 저자에게 아직 활자화하지 않은 흥미진진한 소재와 아이디어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서의 출간이 저자가 수행하는 병자호란 연구의 창대한 마무리가 아닌 ‘미약한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마친다.

27) 이블린 S. 로스키 著·구범진 譯(2010), 『최후의 황제들: 청 황실의 사회사』, 까치, p. 13-14.